

누가 민족문학을 두려워하라?*

-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민족문학 -

윤성호

〈목 차〉

1. 들어가는데
2. 자기동일성의 자명성을 넘어서
3. '미국적 예외성'을 넘어서
4. 트랜스내셔널 전환에 비춰본 민족문학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민족문학론의 진화양상, 특히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발전해온 궤적을,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학/미국문학 연구의 자기정체성 재규명 노력과의 비교를 통해 추적한다. 다양한 자기갱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대표되는 민족현실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전망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요구 사이의 미망에 사로잡힌 민족문학 논의는, 다인종·다문화의 요구를 넘어서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최근의 미국학/미국문학 연구경향과 닮아 있다.

미국학/미국문학 연구에서의 '트랜스내셔널 전환'은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초국

윤성호 한양대학교 영문영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의 일부는 2008년 8월 8-9일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에서 발표되었음.

www.kci.go.kr

가적 국가주의의 강화로, 다시 말해 보편성의 외피 내에 잠재된 ‘미국적 예외성’의 부활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과연 민족문화론이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사유를 보충하여 자기 갱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사유를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로 파악하고 ‘민족’이라는 절대명제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단초를 특수성의 천착과 보편성의 확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밝혀본다.

주제어

민족문화, 트랜스내셔널리즘, 탈학제, 미국학, 백낙청

1. 들어가는 글

누가 민족문학을 두려워하라? 민족문학을 논하면서 생경스럽게 ‘두려움’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영문학 공부하기의 의미, 즉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범고창신(法古創新)의 문제의식을 원죄처럼 지니고 살아야 하는 외국문학(서양문학) 전공자에게 민족문학의 문제는 일종의 부채의식처럼 다가온다. 반면에 외국문학 공부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성과 마주치는 첨예한 경험의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외국문학 공부가 자연스레 ‘근대의 달성과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민족문학의 근원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첫 문장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필자의 두려움을 위와 같이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필자가 이 논문의 주제로 민족문학을 다루며 느끼는 불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문학이론 수입의 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외국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국문학 연구자들의 비판, 그리고 역으로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그러면서 때때로 그 ‘수입상’들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국문학계의 연구태도에 대한 외국문학 연구자들의 비판이라는 대립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측의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의혹과 비판은 그 완곡함의 장막을 걷어내고 나면 사실상 비아냥거림과 조소에 가깝다. 게다가 이식된 근대, 식민통치, 그리고 민족분단을 경험한 한반도의 역사적·정치적 지형에서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에는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라는 ‘뜨거운 감자’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진영논리에 함몰될 위험성이 상존하다. 그러나 이 같은 다소 장황한 자기합리화 혹은 변명의 변을 늘어놓으면서도, 민족문학 담론의 최전선에서 가장 일관되게 생산적인 논의를 이끈 인물이 서양문학, 특히 영문학의 세례를 받은 연구자라는 사실은 필자에게 큰 위안이 된다.

이 논문은 백낙청의 민족문학론, 특히 가장 최근의 ‘분단체제론(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문학론)’의 의미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문맥에서 살펴본다.¹⁾ 한정된 지면 안에서 민족문학 담론의 논쟁사는 물론, 식민주의 경험과 탈식민적 상황을 둘러싼 저항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유효성, 그리고 세계체제구조 속에서 제3세계 민족주의가 담보하는 대안적 성격에 대한 국내 외의 길고 지난한 논쟁의 계보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는 또한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간략하게 민족문학론의 진화 과정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백낙청의 평론집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가 자신의 민족문학론을 자기경신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분단체제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궤적을 미국학연구(미국문학연구)에서의 ‘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 논의와 비교 검토

1)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의 번역어로 ‘초국가’ 혹은 ‘탈국가’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필자는 ‘트랜스’의 의미가 ‘초’ 혹은 ‘탈’과 같은 접두사에 의해 온전히 파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de’처럼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재구성하는 의미에, ‘트랜스’의 어원적 의미가 지시하는 경계를 횡단하는 역동성이 더해지는 것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transnationalism’이 특정한 번역어로 대체되지 않고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될 것이다. 세계체제의 구조의 ‘중심부’인 미국에서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논의와 ‘(반)주변부’로서의 한반도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히 필자의 한정된 전공지식에서 비롯한 편의적 발상은 아니다. 백낙청의 민족문화론이 서구의 근대, 시민, 시민문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트랜스내셔널리즘 담론의 진원지로 가장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미국학 분야에 대한 점검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력의 중심/주변부, 민족(국가)의 내부/외부라는 경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문제의식은 그러한 비교 방식에 대한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자기동일성의 자명성을 넘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민족문화론에 대한 논의는 그 역사가 깊다. 1920년대 프로문학의 계급주의 문학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등장한 최남선, 이병기 등의 국민문학과, 해방공간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반봉건 상태의 극복 및 또 다른 외세의 극복이라는 다중의 과제를 감당했던 ‘조선문학가동맹’의 노선, 경향문학에 반대하는 순수문학을 민족문화으로 규정한 김동리뿐만 아니라,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로 이어지는 순수/참여 논쟁, 이어령, 유종호가 제기한 참여론의 문제의식,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김우중의 순수문학비판 등은 이후 등장한 ‘민족문화론’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창작과비평』 창간호에 실린 백낙청의 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창비의 창간 목적과 방향에 대한 출사표일 뿐 아니라, 그의 민족문화론 구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문학의 순수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의 사회기능과 독자’, ‘한국의 문학인은 무엇을 할까’, ‘회고의 전망’이라는 각각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은 문학적 실천의 강조를 통해 현실비판이라는 창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시민’과 ‘시민문학’ 개념을 기반으로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을 담보하고 있다. 이후 민족문학론, 민중문학론, 제3세계문학론 등으로 이어지는 당시의 비평적 쟁점이 결집되어 있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은 그의 ‘민족문학론’이 ‘민족문학의 새 단계론’으로 그리고 최근의 ‘분단체제론(분단체제극복에 기여하는 문학론)’으로 심화 발전되는 변화의 맥아가 보이는 성과물이다. 또한 김수영을 통해 전개된 시민문학론에서 발전된 민중에 대한 관심은 서구 중심의 인식틀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결합함으로써 리얼리즘론의 서구 편향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리얼리즘론을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시기(그리고 가장 최근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근거는 민족문학 담론에서 ‘민족’이라는 범주가 배타하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 민족문학론 진영의 반론은 민족문학론이 원초적으로 민족 혹은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낙청에게 “민중의식의 전투성과 포용성이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²⁾듯이, 민족문학이 결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 한 민족주의 문학, 혹은 국가주의 문학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란츠 파농이 ‘민족의식의 미망(the pitfalls of national consciousness)’을 통해 경계했듯이,³⁾ 민족문학론은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민족해방 투쟁과 분단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한 반면, 내부적으로 민족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의식과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는 성찰을 보여준다. 민족분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백낙청에게 “민족주의는 분단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면서도 분단체제 재생산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⁴⁾

2)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 1978), 116면.

3) Frantz Fanon, “The Pitfalls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1963), pp. 148-205.

4) 백낙청,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작과비평사, 2006), 21면.

다음에 민족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구 선생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국가라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국가 기구는 민족과 매우 다른 것이고 그 소멸을 이미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사항인 데 비해, '민족'이라는 것의 소멸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복합민족국가 속에서도 민족의 소멸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봐요. 그렇지만 민족 역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고 선생 말씀 중에서도 현단계 우리 역사의 당면 과제로서 민족 문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인류 사회가 다른 차원의 일치에 이를 가능성은 가능성대로 열어두고 싶습니다.⁵⁾

백낙청의 민족문화론에서, '민족주의 문학'은 민족을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비역사적 존재로 추상화시키는 데 비해 '민족문학'은 민족을 근대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 결국 '민족주의 문학'이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전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반면 '민족문학'은 백낙청에게 세계체제의 하위구조로서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변혁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종철은 민족주의의 한계와 민족주의가 제3세계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문맥에서 "제3세계 민족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주의의 극복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⁶⁾ 백낙청의 민족문화론은 '민중문화론', '제3세계문화론'으로의 분화, 그리고 '민족문화론의 새 단계론'으로 진화하면서도 그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분단 극복을 중요 과제로 견지한다. 80년대를 거치며 김명인의 민중적 민족문화론에 의해 '소시민적 민족문화론'으로 폄하되거나, 백진기의 '민족해방문학론', 박노해 등의 '노동해방문학론' 등에 의해 '분단모순'이라는 그의 개념이 기본모순으로서의 '계급모순'을 피해 가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출발에서부터 분단극복론과 함께 근대극복론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고찰하

5) 구중서 외,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좌담), 『창작과비평』, 1979, 9면.

6) 김종철, 「제3세계문화와 리얼리즘」, 『한국문학의 현단계 1』(창작과비평사, 1982), 282면.

는 민족문학론이 계급해방 혹은 민족해방의 관점에 입각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깊이와 폭을 확보할 수 있었던 힘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분단체제’ 문제에 대한 천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낙청이 계급모순을 무시하기보다 계급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경계하고 분단극복에 대한 인식 없이 주요 모순으로서의 ‘민족모순’만을 강조하는 것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은 90년대 들어 민족 단위의 실천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맡으며 ‘분단체제론’이라는 좀 더 정교한 이론체계로 변모한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의 극복을 주요과제로 설정하며 동시에 분단체제를 세계체제 속에 위치시키는 이러한 ‘분단체제론’은 그의 말을 빌리면 “분단현실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기본적인 모순들이 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분단문제가 범박하게 말해 민족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80년대에 이미 부정했던 ‘주요모순=민족모순’으로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다.⁷⁾ 이러한 분단체제론이 제기된 맥락에는 90년대 들어 감지된 민족 혹은 국민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던 사회현실에 불어 닥친 전면적 변화—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 WTO체제의 대두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새로운 국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개방화·세계화로 급격한 정도 등—가 있다. 또한 이전부터 민족문학론의 자기갱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탈근대의 담론들은 기존 인식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반응의 구체적 예로 2007년 백낙청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그 명칭에서 ‘민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꾼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그 명칭 변경을 맞아 발표한 출범선언문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작가들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이주 노동자·결혼이민 여성이 우리

7) 백낙청, 앞의 책 17면.

의 가족이 돼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학적 관심이 민족 내부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동시에 “민족문학의 정신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응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⁸⁾ ‘민족’이란 수식어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수의 과격 좌파 단체로, 해외에서는 극우단체로 오해를 산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직면한 민족문학의 대응 방식과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명칭 변경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상황으로 지칭되는 자본, 노동, 문화 등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과 전이의 양상이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선 전지구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요구한다. 반면, 초민족주의가 20세기 후반에도 지속된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의 발호, 9.11 이후 미국 내 경기장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미국에게 신의 은총을!(God Bless America!)’이라는 노래가 작동시키는 소비니즘적 정서, 그리고 최근의 미국의 노골적인 패권적 외교노선에서 예시되는 국가라는 구조 혹은 실체의 존재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인식들이 근원적으로 민족/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국가를 본질화하는 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지구적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백낙청은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양면성과 분단체제론의 길항 관계에 대해,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 속에서 남북한 공히 독자적 체제 성격을 어느 정도 형성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한사회가 갖는 일차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체제적 시각을 유지하며 동시에 그것이 구체화 되는 현장으로서의 분단모순을 인식하려는 시도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8) 유성호, 「저항의 역사에서 소통과 연대로: 한국작가회의의 명칭변경에 부쳐」, 조선일보 12월 10일 기사 참조.

아님을 역설한다.

‘세계체제 문제의식’이라는 것의 핵심이 모든 구체적인 분석의 출발점을 세계체제로 삼자는 것이라기보다 세계체제 및 그 안의 수많은 하위 체제들 중 어떤 것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을지를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는 통찰—즉 일국중심적 시각에다 ‘세계체제 문제의식’을 가미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방법—임을 간과하고 있을뿐더러, ‘일국중심’과 ‘세계체제중심’ 사이의 중간항으로서 ‘한반도중심’ 시각의 긴요성을 강조하는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이 또 한 번 실종해버린 것이다.

남한 민중이 일차적으로 분단체제의 질곡 속에서나마 가능한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에 주력하면서 이를 통일로 이어지도록 힘쓰고, 동시에 북한 민중과 더불어 아무런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의 극복을 실현하여 세계체제의 변혁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하며, 이 모든 과정과 그 너머로까지 세계 민중과 함께 근대 세계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찾아가는, 최소한 삼중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단체제론의 실천노선이다.⁹⁾

초민족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민족 단위의 실천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분단 상황 인식에 기초한 이러한 분단체제론은 분명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그의 저서 『고삐풀린 근대성(Modernity at Large)』에서 민족국가 이후의 새로운 상상력, 민족국가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초민족적/초국가적 연대와 지배방식을 사유하는 것과 유사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또한 민족·국가 단위의 실천을 넘어서는 논리로서 “한반도중심” 시각의 긴요성을 강조하는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이 과연 ‘일국중심’과 ‘세계체제중심’ 사이의 ‘중간항’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분단체제론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초민족적/초국가적 연대의 전망이 얼마

9) 백낙청,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1995년 가을호, 17면.

나 실천적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결국은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이 중간항으로서의 변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의미론적 중심 (semantic core)’으로서 상수의 역할을 하고, 결국 민족의 위기를 환기함으로써 오히려 민족문학론의 근원적 민족주의적 속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혹은 트랜스내셔널리즘 그리고 탈근대의 사유를 보충함으로써 분단체제론이 민족문학의 외연을 확대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유를 통해 인식론적 단절에 가까운 자기갱신의 의도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반민주주의·반민족주의 따위”라든가 “그것이 내세우는 다양성의 이념도 어디까지나 전지구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의 ‘포스트모던 문화’에 어울리는 만큼의 다원성이요 다원성일뿐”이라는 백낙청의 언급¹⁰⁾은 탈근대적 사유의 잠재된 전복적 정치성에 대한 매우 한정된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분단체제론이 트랜스내셔널리즘, 탈근대의 사유로부터 진정한 자양분의 흡수 없이 자기동일성의 성취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 문학’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문학’의 탈민족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를 드러내는 월러스틴(I. Wallerstein)식의 세계체제론을 상위구조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세계체제론의 틈을 드러내는 제3세계적 현실로서의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문학/세계문학의 틈을 넘어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에 남한사회 내부의 다인종·다문화 변화와 해외동포문학을 매개변수로 ‘민족문학’(혹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명칭 변경을 고려한다면 ‘한국문학’)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각된다. 위와 같은 의문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최근의 미국학(미국문학) 연구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제기

10) 백낙청, 앞의 책, 34-35면.

한 문제의식과 그 과장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미국적 예외성(American Exceptionalism)’을 넘어서

미국의 미국학연구회(Association for American Studies)는 학회지인 『미국학연구 계간지(American Quarterly)』를 통해 매년 신임 학회장의 취임 연설문을 게재하고 미국학연구의 방향, 혹은 보다 큰 의미에서 미국적 정체성과 미국문화의 개념 정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설문은 거의 공통적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 담론을 경유하여 미국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각 연설문 제목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뿌리’, ‘토대’, ‘안과밖(미국과 해외)’, ‘중심’, ‘경계’, ‘명칭’, ‘제국’, ‘새천년’, ‘21세기’, ‘교차로’, ‘다양성’, ‘트랜스내셔널리즘’ 등의 표현은 미국학연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자기반성과 갱신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 모색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 학제적 연원에서부터 불가분 일국적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미국학연구에게 있어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인식론적 전환이 일종의 위협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기 미국문학 연구자들인 헨리 내쉬 스미스(Henry Nash Smith), R.W.B. 루이스(Lewis), 리오 막스(Leo Marx) 등의 ‘신화와상징학과(myth-and-symbol school)’ 연구자들이 전적으로 미국적 가치와 신화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단순화하여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그들이 신비평의 보수적 정치성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치너지’, ‘아메리칸 아담’, ‘미국적 목가주의’ 등의 개념화를 통해 ‘언덕 위의 신도시(the city upon a hill)’와 같은 기존의 미국적 보편적 신화와 상징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과 반문화, 그리고 반전문

화의 토양 속에서 70, 80년대를 관통하며 미국문화에 대한 다원적 접근, 다양성과 불일치를 강조하는 탈신화상징의 기도가 있어왔고, 특히 케플란(Amy Kaplan)과 피즈(Donald Pease)를 비롯한 일군의 ‘신미국학연구자들’이 제기한 미국학연구의 이념적, 정치적 차원에 대한 천착은 초기 미국학의 추상적 탈정치성·탈이념화를 문제 삼으며 최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논의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¹¹⁾

2004년도 미국학연구회 신입 회장 취임연설문인 「문화의 교차로: 미국학연구에서의 초민족적 전환」에서 피쉬킨(Shelley Fisher Fishkin)은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는 9.11 이후 노골화된 미국의 패권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의 미국학연구의 인기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한 특정 학제의 퇴조 여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그러한 관심 축소의 원인이 미국학의 자기중심성, 다시 말해 배타적 일국중심주의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피쉬킨은 미국학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 연구시각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미국학연구의 ‘트랜스내셔널 전환’은 미국 문화에서 특징적인 디아스포라와 이민의 경험을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언어적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과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를 아우르는 반구적(hemispheric) 역사경험에 대한 새로운 연구시각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더릭(Arif Dirlik) 등에 의해 대표되는 ‘트랜스퍼시픽’ 연구시각과 길로이(Paul Gilroy)의 『블랙 아틀란틱(The Black Atlantic)』이 대표하는 ‘트랜스아틀란틱’한 비전, 그리고 안젤두아(Gloria Anzaldúa)의 『보더랜드(Borderlands/La Frontera)』가 예시하는 ‘보더 스터디(border studeis)’의 적용을 통해 ‘아메리카’ 문화정체성의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11) 케플란과 피즈 공동 편저의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1993)과 피즈 편저의 *National Identities and Post-Americanist Narrative* (1994)는 신미국학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서들이다.

최근의 미국 내 문학연구에서 ‘트랜스내셔널 전환’의 영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껏 정전(canon)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다인종·다문화 문학에 대한 재조명과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앤솔로지의 발간이라 할 수 있다. 미국학연구회의 1997년 신입 회장 취임연설문 「평화의 교란: 미국흑인연구를 중심에 놓았을 때 미국학연구에 생길 수 있는 일」 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정주의적 시각을 뒷받침하듯 1985년의 『노튼 여성문학 선집(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 다인종·다문화의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1989년의 『히스 미국문학 선집(Heath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1997년의 『노튼 흑인문학 선집(Norto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Literature)』 등이 발간되어 왔다. 보다 넓게는 토니 모리슨의 평론집 『어둠 속의 유희(Playing in the Dark)』 역시 백인 중심의 미국문학사에 은폐되어 있는 흑인문학의 흔적을 복원함으로써 미국문학의 백인코드가 실상은 기생적으로 억압된 “흑인성의 존재(African presence)”¹²⁾에 의해 조건 지워져 왔음을 효과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솔로스(Werner Sollors)의 『다중언어적 미국(Multilingual America)』과 같은 패권적 영어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속어주의(屬語主義)를 통한 배타적 문학사에 수정을 가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있다.

자연스럽게 이 대목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도전을 오히려 새로운 연구 시각을 형성하는 촉매로 활용하는 미국학연구의 이러한 경향이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미국적 동화(assimilation)의 기제로 흡수하여 미국학의 외연을 넓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국가주의 서사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용광로(melting pot)’담론, ‘샐러드 보울(salad bowl)’ 이론, 그리고 다문화·다인종주의 등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적 정체성의 중심적 위치를 견지하는 국가주의의 틀에 함몰될 위험에 늘 직면했던 것처럼, ‘트랜스내셔널 전환’ 역시 보다 은밀

12) Toni Morrison,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2), p. 6.

하고 교묘하게 위장된 미국중심주의 서사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세계화가 미국 중심의 동질화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와 맞물려 중요성을 갖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내셔널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미국학 연구에 일으킨 파장과 미국적 정체성 탐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의 의미를 애써 폄하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한 미국학/미국문학연구 내에서의 새로운 역동성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미국학/미국문학연구에서의 ‘트랜스내셔널 전환’은 민족중심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뛰어 넘는 일종의 보편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소수·주변부문학 등의 범주를 설정하고 비교문학적 연구시각을 통해 보편적 구조를 탐색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미처 다 포착될 수 있는 그 어떤 속성을 가진 문학이야말로 ‘트랜스내셔널 전환’에 의해 새롭게 포착되는 문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국가 구조를 바라보는 인식론의 전환과 사유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통해, 개별 국가, 문화에 그 연원을 두면서도 동시에 단일국가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종의 ‘불투명성’이야말로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적 정체성과 미국적 예외주의 신화에 대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도전을 반영하면서 인종적, 문화적인 개별 범주 하에서 독자적 연구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치카노/치카노 연구 등이 트랜스아틀란틱, 트랜스퍼시픽, 보더스터디 등을 자양분으로 미국적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넘어서는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불투명성’ 연구의 구체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학/미국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포터(Carolyn Porter)의 논문 「우리의 무지에 대한 얇: 미국문학사의 지도 다시 그리기」 역시 미국문학의 국제적 차원

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 무시를 일종의 미국문학 연구의 맹점(a blind spot)으로 파악하며 미국문학이라는 지시어를 복수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트랜스내셔널 전환’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새로운 ‘미국문학’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 현재의 ‘트랜스내셔널 전환’ 논의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은 트랜스내셔널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특정 문학 양식의 존재라기보다, 그러한 시각을 통해 기존의 문학을 재평가하거나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을 재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랜스내셔널리즘 논의를 의식하고 디아스포라와 같은 특정 경험에 초점을 맞춘 몇몇 작품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기존의 문학작품을 재평가, 재 발굴하는 작업이 보다 풍성한 연구결실을 맺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노예제의 경험과 유럽식민지의 흔적을 공통분모로 미국남부와 카리브 지역을 연결시키고 있는 글리쌍(Edouard Glissant)의 『포크너, 미시시피』는 ‘포크너/미시시피’, ‘글리쌍/마티니크’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 ‘포크너/마티니크’, ‘글리쌍/미시시피’로 복잡하게 분화하는 문학사적 영향과 교차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포크너가 미국남부라는 지극히 지역적인 특수성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도 동시에 그 지역적 한계를 가장 잘 허물고 있는 작가임을 설파한다. 미국흑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 그리고 그 유산의 현재성에 천착하고 있는 모리슨(Toni Morrison)의 소설은 라틴아메리카 작가들과의 상호텍스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억압의 역사를 트랜스아틀란틱이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조망함 없이 온전하게 읽힐 수 없다.

최근 국내 문학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한국계미국 작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강용홀 (Younghill Kang)의 『동양 서양에 가다(*East Goes West*)』를 읽을 때 그 작품에 나타난 ‘동양’은 이민자(망명자)인 작가가 두고 떠난 한국인으로서의 ‘그’의 동양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미국 독자들을 위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투과된 ‘그들’의 동양을 의미하는가? 김은국(Richard E. Kim)의 『죄 없는 사람(*The Innocent*)』에서 묘사

되고 있는 군사혁명에 5.16에 대한 알레고리인가, 아니면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대한 교묘한 비판인가?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A Gesture Life)』에서 주요 소재로 채택되고 있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면 미국 내의 환태평양 담론에 의해 일정 정도 전유된 ‘그들’의 역사인가? 이외에도 하와이의 토착 전통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게리 박(Gary Park), 자신의 다인종적 유산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아시아 이민 역사 속에서 탐구하고 있는 캐시 송(Cathy Song), 그리고 자신을 미국의 남부문학 전통에 위치시키고 있는 수잔 최(Susan Choi) 등의 경우는 인종, 문화, 언어는 물론 지역과 국가 사이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각각의 지시어 사이에 잠재된 갈등과 충돌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적 서사로의 재포섭이라는 위험성과 길항관계를 이루며 일국중심주의의 배타성을 넘어 ‘트랜스내셔널 전환’의 구체적 결과물을 풍성하게 도출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학/미국문학 연구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문맥 속에서 민족문학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4. 트랜스내셔널 전환에 비춰본 민족문학론

앞서 밝힌 대로 민족문학론은 근대의 달성과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 분단모순, 세계체제 구조 속에서의 제3세계의 현실 등에 대한 천착을 통해 자기정체성 확보의 성취를 이뤄낸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론이 강조하는 “중간항으로서의 한반도중심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문학론의 태내에 늘 잠재해있던 민족주의적 특수성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리고 초민족주의적 상황 변화 속에서 “전지구적 착취와 파괴에 맞서 싸우는 초민족주의적 연대를 형성해내는 일은 바로

‘민족적’인 과제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¹³⁾는 백낙청의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또 다시 추상적인 이론 전개 대신, 위에서 도출한 미국학/미국문학연구 내에서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담론과의 비교,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분단체제론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민족문학의 외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백낙청은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에 실린 「지구화시대의 민족과 문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지구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족문학들로 이루어지는 세계문학론의 형태를 구상한다. 그는 “널리 퍼져 있는 신화와는 달리 거의 모든 경우에 국가가 민족에 앞섰지 그 역이 아니었다”는 윌러스틴의 진술, “일국적 편향성과 편협성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며, 수많은 국민문학·지역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문학이 형성된다”는 『공산당선언』의 구절을 인용한 뒤, “‘외국’ 문학에 대비되는 자신의 민족(내지 국민)문학의 존재를 명백히 전제”로 한 “다수의 문학들로 구성되며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학적 생산물”로서의 괴테의 ‘세계문학론’을 자신의 전지구화시대의 세계문학 구상의 근거로 내세운다. 70년대 백낙청의 제3세계문학론은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민족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제3세계의 시각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담보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이러한 제3세계문학론과 비교했을 때 분단체제론에서 세계문학은 개별 민족문학들의 총합으로서, 그리고 세계사적 전망과 세계구조와의 긴장 속에서 민족문학의 지위를 담보하던 제3세계적 현실은 결국 분단체제의 특수성으로 그 지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적’인 것의 복수화를 통해 ‘트랜스내셔널 전환’을 꾀하는 미국학연구의 방식과 비교하면, 백낙청이 구성하는 세계문학의 실체는 그 하위체제로서의 민족문학들의 총합이 되는 셈이다. 과연 이러한 ‘총합’의 형태로 그가 제시하는 “민족적 과제의 일부”

13) 백낙청, 앞의 책, 84면.

로서 “전지구적 착취와 파괴에 맞서 싸우는 초민족적인 연대”의 전망이 가능할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민족문학들의 초민족적 연대를 실현함에 있어 ‘분단체제의 특수성’이라는 지극히 한반도 중심적인 문제의식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개별 민족주의에 대한 축적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추상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이유가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 주체가 속한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라는 지적¹⁴⁾을 감안할 때, 과연 분단체제의 잣대를 가지고 초민족적인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일국의 편향성과 편협성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또 다른 도전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명칭 변경에서 드러나듯 새롭게 민족문학의 외연을 확인해보는 일이다. 그것은 분단국가의 반국문학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남한문학의 독자적 성격, 특히 남한사회 내부의 다인종·다문화의 변화를 인식하는 일, 그리고 재일(在日), 조선족 문학 등의 해외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문학의 복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백낙청은 속어주의(屬語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편협성을 벗어나는 포괄적 시각 속에, 조선족이면서도 우리말로 작품 활동을 하는 김학철(金學鐵)과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는 이회성(李恢成)의 작품을 민족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¹⁵⁾ 그런데 백낙청의 이러한 민족문학 규정에서 여전히 눈에 띄이는 것은 ‘조선족’과 같은 인종적·문화적 유연성(類緣性) 그리고 민족의식의 유무 여부와 같은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잣대들이다. 더구나 ‘분단체제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이라는 문제의식이 해외동포들의 디아스포라문학에서—특히 세대를

14)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1999), 23-24면.

15) 이에 비해 김명환은 민족문학을 ‘남북민족과 해외동포가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으로 규정한다. 김명환, 「87년 이후의 민족문학론」, 『창작과비평』, 2005년 겨울호.

더하며 민족적 가치의 의미가 점점 탈색되어 지는 2세대, 3세대 작가들에게—과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백낙청의 민족문학 구성은 그 내부의 구성원 확보에 있어서도 단순히 외연의 확장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앞서 예를 든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무리 철저한 민족의식을 견지하는 작가라 하더라도, 그들의 작품은 오히려 ‘미국문학’의 범주에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적’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넘어서는’ 일종의 불투명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다 온전히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그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국내의 다인종·다문화·다언어 가정에서 출생한 새로운 작가군이 앞으로 한국어 혹은 그들의 이민자 부모세대의 언어로 창작한 작품은 과연 민족문학론의 범주 속에서 어떤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될 것인지 분명치 않다. 결론적으로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해온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은 선취한 이전의 성과들을 초민족적 전망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한편으로 분단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70년대의 제3세계문학의 세계사적 전망이라는 성과에서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민족문학의 외연을 새롭게 확인함에 있어 남한사회 내부의 초민족적 변화와 해외 동포문학 논의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백낙청이 분단체제를 중간항으로 설정하는, 그리고 “민족국가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지구화시대 다수민중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구조의 창안을 이끌어내는 통일”을 구상하는 사고는 필자에게 여러 논자들에 의해 거론되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¹⁶⁾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는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global)’한 이중시각(bifocal)의 통합적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침탈과 지역성에 기반을 둔 ‘내부’로부터의 저항이라는

16) 한 예로 프레드릭 제임슨의 저서 『시간의 근원(The Seeds of Time)』을 참조.

대립항을 근원적으로 거부하고, 지역과 세계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그로부터 일방향의 세계화담론이 야기할 수 있는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지역성’, 혹은 ‘지역적 특수성’은 그 ‘바깥’을 상징함으로써 보장되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저항’의 과정에서 인식되는 ‘바깥’이라는 개념범주가 지역과의 연관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인 것만큼, 그와 짝을 이루는 ‘지역성’ 역시 지속적으로 해체와 재구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네그리가 『제국』에서 국가의 역할을 매개로한 레닌식의 제국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국주의’와 변별되게 권력의 중심도 외부도 없는 상이한 구조와 기구의 혼합체로서의 ‘제국’의 개념을 역설하고, 이를 통해 타진하는 ‘다중’의 가능성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그리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초민족적 상황으로 통칭되는 많은 것들이 이러한 지역/세계, 중심/주변 사이의 유동성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적어도 FTA 개방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 역시 국가이익의 범주로 모두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최근 미국의 침략 전쟁의 경우도 워싱턴과 군수산업, 월가의 금융세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만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가 ‘비관적 지역주의’ 같은 ‘중간항’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론이 강조하는 분단체제라는 특수성과 세계사적 전망이라는 보편성 사이의 생산적인 긴장 관계가 어느 일방의 본질화를 피하는 형태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사회 내부의 다인종·다문화·다언어 사회로의 이행과 해외동포문학을 민족문학의 맥락에서 논의할 때 역시, 보다 유연하고 느슨한 연대의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스피박(Gayatri Spivak)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가된 무지(sanctioned ignorance)¹⁷⁾에 의한 과도한 확장의 형태로 민족문학의 외연을 무한정으로 넓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민족문학 논의를 학제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보면, 민족문학 담론 연구자의 구성은 이제 더 이상 국문학연구자 혹은 민족문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서양문학 전공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밝힌 대로 새로운 민족문학의 외연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단일 전공 연구자의 연구 영역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학제 구분이 적지 않은 경우 언어, 지역, 문화라는 패쇄적 단일국가 이념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일 학제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내셔널리즘 논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탈학제적(post-disciplinary)’ 연구는 새삼스레 연구자 개인에 의한 독자적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거나, 전통적인 학제 간 협업형태의 공동연구를 재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통적 학제 구성, 연구형태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뿌리 깊은 학과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임용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 기존 학제의 해체와 재배치를 의미하기에 적지 않은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문맥 속에서 민족문학 담론을 논의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투고일	09.04.10	심사완료일	09.05.11	게재확정일	09.05.14
-----	----------	-------	----------	-------	----------

17) Gayatri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Cambridge: Harvard UP, 1999), 164, 170면.

〈참고문헌〉

- 구중서 외.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좌담). 『창작과비평』, 1979. 9.
- 김명환. 「87년 이후의 민족문학론」, 『창작과비평』, 2005년 겨울호.
- 김종철. 「제3세계문학과 리얼리즘」, 『한국문학의 현단계 1』. 창작과비평사 1982.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 _____.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1995, 가을호.
- _____.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작과비평사, 2006.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 Fanon, Fran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1963.
- Jameson, Fredric. *The Seeds of Time*. New York: Columbia UP, 1996.
- Morrison, Toni.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2.
- Spivak, Gayatri.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1999.

〈Abstract〉

Who Is Afraid of National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in the Age of Transnationalism

Yoon, Seong-ho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reconsidering Paik Nak-chung's discourse on national literat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transnational turn" in American studies. While heterogeneity and heteroglossia are praised that are supposed to be troubling to the creation of national culture in unitary terms, recent peons to global and transnational cultures may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re-create a national culture vis-à-vis transnational circumstances. The discourse on national literature in Korea is also never impervious to such a suspicion in the sense that it has been straddling between the country's historical specificities and a desire to move beyond the constraints and confines of the national and Third-World framings.

With such issues in mind, this article thus seek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w transnationalism complicates our understandings of regions, nations, and global communities; does transnationalism function as an enabling category that makes local, cultural, literary practices accessible to a global community by mediating national and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finally, in what ways might transnationalism limit or essentialize our reconceptualization of national literature at the very moment the Korean society is transforming itself into a multicultural, multilingual, and multiethnic one.

Key Words: national literature, transnationalism, post-disciplinary,
American Studies, Paik Nak-chung